

## 영어 주어의 한국어 전환 - 의미역관계를 중심으로

정인식·채숙희  
(아주대)

## 1. 서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로 옮길 때에 (1)부터 (3)에서처럼 대개 ‘-은/-는/-이/-가’를 붙인다.<sup>1)</sup>

- (1) a.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b.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 (2) a. He sent the flowers to his girlfriend.  
b. 그는 여자 친구에게 꽃을 보냈다.
- (3) a. Some of them had hidden some grapes in the sand.  
b. 그들 중 일부가 모래 속에 약간의 포도를 숨겨놓았다.

---

1) 엄격히 말해서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닌 보조사인데 체언 뒤에서 사용되어 주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대조나 화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정민(1992)과 박철우(1999)를 참고하라.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의 주어틀 한국어 주어로 바꿀 때에 해당 조사를 붙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주어와 영어의 주어 사이에 체계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를 사용하여 영어의 주어틀 한국어로 옮기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이 된다.

- (4) a. One hour's walk brought her to Seoul Station.  
 b. \*한 시간의 걸음이 그녀를 서울역으로 데려왔다.  
 c. 한 시간을 걸어 그녀는 서울역에 왔다.<sup>2)</sup>

(4b)는 (1) - (3)의 예와 동일한 조사를 사용하여 주어틀 전환하였을 때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에 영어의 주어틀 한국어 주어로 바꿀 때에 무조건 한국어 주어에 조사 ‘-은/-는/-이/-가’만을 붙이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4c)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에 주어는 ‘그녀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가어로 기능을 하는 ‘한 시간을 걸어’가 영어의 주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어의 주어틀 바로 한국어 주어로, 반대로 한국어 주어틀 영어의 주어로 옮기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의 주어틀 한국어로 바꿀 때에, 그리고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의 주어로 바꿀 때에 의미역에 근거해 차이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밝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영어의 주어틀 한국어로 옮길 때에 반드시 주어 대 주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에 한국어 주어만이 아닌 한국어의 부가어도 영어의 주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함으로써 두 언어 간의 호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2) 동사 ‘bring’이 ‘데려오다’라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옮길 때에는 ‘Cause + Come’과 같이 어휘분해(lexical decomposition)를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분해와 관련해서는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자 한다. 어휘분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Katz and Fodor(1963)와 Cruse(2000)를 참고하라.

한국어의 주어와 영어의 주어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로 옮길 때에,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주어라는 기능적인 면에서만 접근할 때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점에 근거하여 이들 주어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문형을 통하여 의미역을 고찰하고자 하나, 연계동사로 연결된 문장, 즉 SV 혹은 SVC 문형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는 해당 문형에서는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 주어로 바꿀 때에 후자의 주어에 ‘-은/-는/-이/-가’를 사용하여도 대체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의미역 때문이다.

## 2. 주어의 형식적 고찰

### 2.1. 한국어 주어와 영어의 주어

전통문법에서 주어는 술어와 더불어 절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성분 중의 하나로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주어는 대개 명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남기심, 고영근(1994: 238)에 의하면 한국어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하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되는 말이라고 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5) a.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 b. 우리가 그 자동차를 발견했다.
- c. 둘이 세 사람 몫을 해냈다.
- d. 그들의 주장이 우리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 e.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 c. 그들 모두 그 장애물을 통과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가’와 같은 주격조사 외에도 주어에는 다른 조사가 사용될 수 있다. 주어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께서’가 쓰이고, 주어가 단체를 뜻하는 명사일 때에는 처소격 조사인 ‘-에서’가 쓰인다.

- (6) 할머니께서 방금 출발하셨다.  
 (7) 정부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sup>3)</sup>

주격조사의 자리에 각주 1)에서 언급된 보조사 ‘-은/-는’과 ‘-도’도 쓰일 수 있다.

- (8) a. 인체는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  
 b. 철수도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

게다가 통사적인 면에서 한국어 주어는 존대할 대상일 때에 아래 (9)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를 수반한다.

- (9) a. 아버지께서는 밤낮으로 운동을 하셨다.  
 b. 우리 사장님도 그런 성격이 있으시다.

그리고 한국어 주어와 동일 지시되는 말이 같은 절에 나타나면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나 ‘자신’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기’나 ‘자신’의 지시하는 것이 주어가 된다.

- (10) a. 내 친구는 친구들에게 자기/자신 책을 잘 빌려준다.  
 b. 그는 자기/자신만 돌본다.

3)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무정명사(inanimate noun)인 것이 원칙이다. 무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유정명사(animate noun)에 대립된 말이다.

- i)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모형의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ii) \*상급반 학생들에서 학교 앞 청소를 한다.

이번에는 영어의 주어를 살펴보자. 영어의 주어는 문장의 시제를 담고 있는 동사나 조동사와의 일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에 동사의 어미에 ‘-s’가 부가되는 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 (11) a. The tiger hunts its prey at night.  
 b. The tigers hunt prey at night.

게다가 영어의 주어는 아래 (1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절 내에서 사용될 때 재귀대명사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 (12) a. He can wash himself and brush his hair.  
 b. \*Hei can wash himi and brush his hair.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 주어와 영어의 주어는 대체로 동사를 선행한다는 점과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하지 않을 때에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두 언어의 유형이 다른 만큼 형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면에서도 상이한 면이 드러난다.

## 2.2. 한국어와 영어의 주어의 문법범주

이번에는 한국어의 주어와 영어의 주어 위치에 쓰이는 어휘범주를 살펴본다. 아래에 주어진 예문들이 보여주다시피 영어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한국어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주어를 영어의 주어로 바꾸어봄으로써 어떤 범주들이 출현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명사, 명사구, 수사, 대명사 등이 실현될 수 있다.

- (13) a. 신은 존재한다.  
 b. God exists.  
 (14) a.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다.  
 b. A rat at bay can bite a cat.

- (15) a. 그 다섯은 동갑이다.
- b. The five are the same age.
- (16) a. 그것은 정말 무거웠다.
- b. It was very heavy.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서 온 파생명사가 ‘-음/-기’의 형태를 취한다.

- (17) a. 그의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 b. His son's death was a great shock to him.
- (18) a. 지구의 둥글기가 공과 같다.
- b. The roundness of the earth is like that of the ball.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것”이 부가되어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 (19) a.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b. Playing with guns is dangerous.
- (20) a. 그런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b. To build such a bridge is a difficult task.

그리고 아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명사절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 (21) a.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선 330척을 물리쳤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 b. That admiral Yi Soon-shin smashed 330 Japanese ships with only 12 ships is a historical fact.
- (22) a. 그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 b. How the fire started has not yet been determined.
- (23) a.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는/정말로 높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sup>4)</sup>
- b. How tall the building is is known to everyone.

4) 영어의 감탄문은 감탄사 ‘how’나 ‘what’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감탄문이 주어로 쓰일 때에 한국어로 옮기게 되면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이 있다.

심지어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류 등도 주어로 쓰일 수 있다.

- (24) a. ‘끔찍한’은/‘끔찍하다’는 ‘소름끼치는’과/‘소름끼치다’와 동의어입니다.  
 b. ‘Frightful’ is synonymous with ‘terrible’.
- (25) a. ‘-때문에’는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b. Is ‘because’ a preposition or a conjunction?
- (26) a. 울타리 넘어는 바깥입니다.  
 b. Over the fence is out.

위의 (13)에서부터 (26)까지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주어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주는 영어의 주어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경우들에서는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 주어로 바꿀 때에 조사 ‘-은/-는/-이/-가’를 붙이는 것이 대부분 적절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예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 (27) a. The lack of strong family ties drives children to abandon their parents. (Newsweek. 1983. 1. 24)  
 b.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의 결여는/\*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의 없음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 부모를 버리게 한다.  
 c.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들 부모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27a)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영어의 주어이다. 이 주어를 (27b)처럼 영어의 명사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은/-는/-이/-가’를 붙이는 것보다는, (27c)처럼 이유 부가어로 변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된다.

영어와 한국어의 주어에 나타나는 의미역의 범주가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로, 그리고 한국어의 주어를 영어의 주어로 바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통사적인 분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어에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인 범주는 같다고 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의 술어가 주어의 의미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이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3. 주어의 의미적 고찰

#### 3.1. 의미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 요소들 사이의 통사적인 역할 뿐만이 아니라 의미 관계도 중요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 (28) a.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  
 b.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문장 (28a)에서의 주어는 ‘콜럼버스’이고 문장 (28b)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들 문장은 각각 주어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통사적 역할만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역 관계에 대해서는 Gruber(1965)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논의된다. 이후 Jackendoff(1972)에서 확대 발전되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미역은 서술어와 관계 속에서 논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필수적인 의미역과 선택적인 의미역으로 나누어진다.<sup>5)</sup> 전자는 술어에 필수적인 논항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 (Who did what to whom?)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나는 논항들을 말한다. 후자는 의미적인 상황에서 필요로 되는 부가적인 의미역으로써 언제(when), 어디서(when), 어떻게(how) 그리고 왜(why)로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으로 쓰이는 것들을 말한다.

의미역은 대체로 논항이 술어와 갖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논항, 즉 부가어(adjunct)는 의미역을 고찰할 때에 자주 무시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주어를 살피고 그리고 이들 주어에 부가어로 사용되는 의미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부가어의 의미역도 함께 살펴본다. 설명의 편의상 이런 의미역은 언어 마다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써 영어의 예

5) Frawley(1992)는 의미역을 크게 참여자역(participant role)과 비참여자역(nonparticipant rol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Halliday(1970)는 그것을 필수역(obligatory role)과 선택역(optional role)으로 구분하고 있다. 흔히 참여자역과 필수역, 그리고 비참여자역과 선택역은 서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다.



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행위자역(AGENT)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의도를 가지고 다른 대상의 위치나 속성 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29) a. John hit Mary
- b. The FBI arrested Alex.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29)에서처럼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지만 주어로 쓰인 모든 표현이 모두 다 행위자역을 갖는 것은 아니다. (30)에서처럼 행위자역은 주어라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 (30) The laws were signed by the president.

• 대상역(THEME)<sup>6)</sup>

대상역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의미역을 말하며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 (31) a. The boy stole a bicycle.
- b. The arrow hit the apple.

6) Jackendoff(1987)은 대상역(THEME)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 명칭이 없을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용어 대신에 행동을 당하는 실체인 수동자역(PATIENT)이나 경험 혹은 지각을 당하는 실체인 피경험자역(PERCEPT)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i) The dog bit the child. (수동자역)
- ii) Mary saw the ghost. (피경험자역)

· 경험자역(EXPERIENCER)

경험자역은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느끼거나 지각하는, 다시 말해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실체(living entity)를 말한다.

- (32) a. Alan likes cookies.  
b. It seems to me that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 수혜자역(BENEFACITIVE)

수혜자역은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실체를 말한다.

- (33) a. I bought these flowers for my mom.  
b. He made his son a kite.

· 도구역(INSTRUMENT)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실체를 말한다.

- (34) a. We cut the meat with a knife.  
b. This key will open that door.

· 근원역/출처역(SOURCE)

어떤 실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나 실체를 말한다.

- (35) a. John went from Seoul to New York.  
b. Daniel returned from Paris.

· 위치역(LOCATION)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낸다,

- (36) a. Alan stayed in Washington.  
b. Annie kept the book.

· 목표역(GOAL)

목표역은 어떤 행위가 지향해가는 목표를 말한다.

- (37) a. He went from Seoul to Pusan.  
b. He gave Mary the book.

· 원인역(CAUSE)

사건이나 상태의 이유가 되거나 직접적으로 사건을 유발하는 의미역을 말한다.

- (38) a. He cannot work because of illness.  
b. He absented himself from the meeting due to a traffic accident.

· 시간역(TIME)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낸다,

- (39) a. The rocket was launched yesterday.  
b. I always brush my teeth at night.

이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Gruber(1965)와 Jackendoff(1972) 이후 언어학자들은 의미역의 보편적인 분류체계를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의미역이 있고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확히 의미역이 몇 개나 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의미역에 대한 명칭도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40) a. John lent the book to Mary.  
 b. The hammer broke the window.

위 문장 (40a)에서 주어 'John'은 행위자역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출처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40b)에서 주어 'The hammer'는 행위자역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도구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3.2. 영어의 주어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 고찰

이번에는 영어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의미역을 살펴보자. 3.1절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의미역이 영어의 주어위치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41) a. The child was throwing stones at the bridge. (행위자역)  
 b. He broke her vase.  
 (42) a. Bill smelled the bacon first. (경험자역)  
 b. Jeremy saw the eclipse.  
 (43) The man was beaten by the dog. (대상역)  
 (44) The hammer broke a window. (도구역)  
 (45) a. Every year sees a lot of traffic accident there. (시간역)  
 b. An hour's walk gave her a good appetite.  
 (46) The Amazon region in South America has seen the rise of Spanish and Portuguese as the languages of choice. (위치역)  
 (47) a. Careless driving causes accidents. (원인역)  
 b. The cyclone has resulted in many thousands of accidents.  
 (48) We were outnumbered by the enemy. (비교역)<sup>7)</sup>  
 (49) The island was reached at 11:00.(목적역)  
 (50) The absence of those with knowledge of ancient languages leaves no one who can articulate the words spoken by their ancestors. (조건역)

7) 본 논의에서 비교역(COMPARISON), 목적역(PURPOSE) 그리고 조건역(CONDITION)은 기존 의미역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범주의 의미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다. 용어상의 적절성은 좀 더 토의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교역은 술어의 행위나 상태를 비교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비교가 되는 논항을 나타내며, 목적역과 조건역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목적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 (51) Understanding Americans involves understanding some of their behavior patterns and the reason for seeming inconsistencies in them.  
 (목적역) (Doty & Ross (1981). *Language and Life in the U.S.A.*: 25)

위의 예 (41) - (51)에서 보듯이 영어의 주어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역이 분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곧 뒤에서 다루겠지만 한국어의 주어에는 일부의 의미역만이 아주 제한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 3.3. 영어 주어의 한국어로의 전환

이번에는 위의 (41)에서 (51)까지 예시된 유형의 영어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겨보자. 먼저 주어가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이 사용된 문장들을 먼저 살펴보자.<sup>8)</sup>

- (52) a. Tommy drove the car (행위자역)  
 b. 토미가 그 차를 몰았다.  
 (53) a. A camel can smell water seven miles away. (경험자역)  
 b. 낙타는 7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  
 (54) a. The man was beaten by the dog. (대상역)  
 b. 그 사람은 개한테 물렸다.

(52a)에서의 주어 ‘Tommy’는 행위자역을 갖는데 한국어 주어로 옮길 때에 (52b)에서처럼 주격조사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52b)에서의 한국어 주어 ‘토미가’ 역시 의미역에 변화는 없다. (53a)에서 주어 ‘A camel’은 경험자역을 갖고, 주격조사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변환이 된다. 그리고 (54a)의 ‘The man’은 수동문의 주어로서 대상역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 역시 ‘은/는/이/가’를 붙여서 한국어의 주어로 자연스럽게 변환된다. 즉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과 같은 의미역은 영어의 주어에서 한국어 주어로, 그리고 반대로 한국어 주어에서 영어의 주어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런 체계성이 있다.

8) 제한된 지면에 좀 더 풍부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 앞에서 인용된 예문 외에 별도 예문을 인용한다. 앞에서 인용된 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직접 적용해보도록 한다.

박창영(2013)도 한국어의 주어는 조사 ‘-이/-가’와 결합될 수 있는 명사구 중, 행위자역, 경험자역, 대상역의 의미역을 지니는 명사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주어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역만이 분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들 의미역 외에 다른 의미역들이 영어의 주어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한국어로 바꿔보자.

- (55) a. One dollar cannot buy anything.  
 b. \*1달러는/1달러가 아무것도 살 수 없다.  
 c. 1달러로(는)/1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d. We cannot buy anything with one dollar.

동사 ‘buy’는 ‘사다, 구매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에 그것의 주어 논항에 행위자역을 부여한다. 하지만 주어 ‘one dollar’는 행위자역이 될 수 없고 술어로부터 도구역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55a)를 (55d)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5c)와 같이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에서는 부가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 (56) a. Last year found her married to him.  
 b. \*작년은/작년이 그녀가 그와 결혼하는 것을 발견했다.  
 c. 작년에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d. She was married to him last year  
 e. \*Last year found her married to her in 2010.

문장 (56a)에서 동사 ‘found’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주어에 경험자역을 부여한다. 3.1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험자역은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느끼거나 지각하는, 다시 말해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실체를 나타내는데 (56a)의 주어는 ‘Last year’로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므로 경험자역을 부여 받을 수 없다.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56a)는 (56d)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Last year’는 시간역을 부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Fillmore(1970)에 의하면 (56e)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술어는 그것이 취하는 논항에

같은 의미역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어인 ‘Last year’는 시간역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올바른 해석은 (56c)와 같이 옮겨야 한다.

- (57) a. In 1910, a German pharmaceutical catalog was still selling mummy. (Smithsonian.com April 25, 2013)  
 b. \*1910년도 독일의 약품 카탈로그는 여전히 미라를 팔고 있었다.  
 c. 1910년도 독일의 약품 카탈로그에서 여전히 미라를 팔고 있었다.  
 d. In 1910, they were still selling mummy in a German pharmaceutical catalog.

동사 ‘sell’은 일반적으로 2개의 논항을 취하고 그것의 주어 논항에 행위자역을 부여한다. 하지만 (57a)에서의 주어 ‘a German pharmaceutical catalog’는 행위자역을 부여받을 수 없다. (57d)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위치역을 부여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7c)와 같이 한국어 문장에서 위치역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르다.

- (58) a. His poverty prevented him from going to college.  
 b. \*그의 가난이\*그의 가난은 그가 대학가는 것을 막았다.  
 c. 그가 가난해서 대학에 가지 못했다.  
 d. Because of his poverty, he could not go to college.

동사 ‘prevent’는 ‘막다, 방해하다’의 뜻으로 ‘We prevented the fire from spreading.’에서의 주어 논항 ‘We’는 막는 행위를 하는 주체로써 의도를 가진 행위자역을 술어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문장(58a)에서의 동사 ‘prevent’의 주어 논항 ‘His poverty’는 그와 같은 행위자역을 수행할 수 없고, 같은 의미의 문장 (58d)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역을 부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 논항은 원인역으로 (58c)와 같이 옮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 (59) a. We were outnumbered by the enemy.  
 b. \*우리는\*우리가 적에 의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c. 우리보다 적이 수가 더 많았다.  
 d. The enemy was more numerous than we.

일부 동사에 접두사 ‘out-’이 붙어있는 경우 목적어 논항으로 비교 대상이 요구된다.9) (59a)에서 동사 ‘outnumber’는 주어인 위치역과 목적어인 비교역을 취한다. 이와 같은 부류의 동사들이 수동태를 취할 때에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에게 오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면 (59c)와 같은 해석은 어려움 없이 얻어낼 수 있다.

- (60) a. She was given a list of things to buy.  
 b. \*그녀는 살 물건의 목록이/을 주어졌다  
 c. 그녀에게(는) 살 물건의 목록을 주었다.  
 (61) a. Our building was entered by someone with someone with a key.  
 b. \*우리의 건물이/\*우리의 건물은 열쇠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들어와졌다.  
 c. 우리의 건물로/우리의 건물에 열쇠를 가진 누군가 들어왔다.

동사 ‘give’는 논항 3개를 필요로 하는 술어동사로 주어에는 행위자역10), 간접 목적어에는 목표역 그리고 직접목적어에는 대상역을 부여한다. (60)의 문장은 능동문에서 목표역을 받는 간접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옮겨간 수동태 문장이다. 이런 경우의 주어에 단순히 주격조사만을 붙이는 것은 (60b)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하고, (60c)에서처럼 목표역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문장 (61a)의 동사 ‘enter’는 행위자와 목표역을 필요로 하는 술어이다. 그래서 (60)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여 (61c)를 얻게 된다.

- (62) a.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religion perceives these two fields as being disciplines of different realms. (Alphonse Dougan (June, 2005). *The Fountain Magazine* 50)  
 b. ?\*과학과 종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두 분야를 다른 영역의 학문으로 생각한다.11)

9) 접두사 ‘out-’이 붙은 동사들의 예로 몇을 들자면 ‘outlast (= last longer than), outlive (= live longer than), outrun (= run faster than)’ 등이 있다.

10) 이런 수여동사의 경우 주어 논항의 의미역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는 주어에 행위자역을 부여한 반면, 다른 학자들은 출처역을 부여한다.



- c. 과학과 종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두 분야를 다른 영역의 학문으로 생각하게 된다.
- d. If we understand science and religion superficially, we perceive these two fields as being disciplines of different realms.

동사 ‘perceive’는 대개 그것의 주어 논항에 경험자역을 부여한다. (62a)의 주어는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religion’으로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므로 경험자역을 부여 받을 수 없다. (62a)의 문장을 비슷한 의미의 (62d)로 바꿀 수 있고, (62a)의 주어가 (62d)에서는 조건역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아 (62c)와 같은 해석이 적절하다.

- (63) a. The class met on Tuesdays. (Mitch Albom (2005). *Tuesdays with Morrie*: 1)
- b. \*그 수업은/\*그 수업이 화요일에 만났다.
- c. 그 수업을 하기 위해/그 수업을 위해 화요일에 만났다.
- d. We met on Tuesdays for the class.

(63a)에서 동사 ‘meet’은 대개 주어에 행위자역을 부여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주어 ‘the class’는 (63b)에서처럼 행위자역을 받을 수 없고, 술어로부터 의미역으로 목적역을 부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3a)를 비슷한 의미의 (63d)로 바꾸어 써보면, 목적역을 나타내는 한국어 조사 ‘-을 위하여’를 사용하여 해석한 (63c)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 11) (62b)의 번역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문법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예문들에서는 (62b)와 같이 번역을 하게 되면 대체로 자연스럽게 못하다.
    - i) The absence of those with knowledge of ancient languages leaves no one who can articulate the words spoken by their ancestors. (Edmund, Paul, McKinnon, Nancie & Zeter, Jeff(2009) *Developing Skills for the TOEFL iBT-Reading*: 142)
    - ii) \*고대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음은 조상들이 쓰던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다.
    - iii) 고대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조상들이 쓰던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놓고 볼 때에 영어의 주어(Subject)를 한국어의 주어(Subject)로 바꿀 때에, 주어가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에 대해서는 ‘-은/-는/-이/-가’의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영어 문장의 주어가 그 외의 다른 의미역을 가질 때에는 한국어의 경우 그 의미역에 맞는 적절한 다른 조사나 접속사를 사용해야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들 의미역에 맞는 조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미역	한국어 조사/접속사	의미역	한국어 조사/접속사
도구역	-을 가지고, -으로	비교역	-보다, -와
시간역	-에, -때에	목표역	-에게, -으로
위치역	-에	조건역	-라면, -하면
원인역	-때문에	목적역	-을 위하여

이런 의미역들은 영어와 한국어에서 주로 부가어로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논항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가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국어의 경우 이것을 그대로 ‘-은/-는/-이/-가’를 붙여서 주어로 옮기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혹은 오역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 주어(Subject)를 한국어로 바꿀 때에 그리고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의 주어(Subject)로 바꿀 때에 이런 의미역을 고려하게 되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4. 결론

영어의 주어와 한국어의 주어는 통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주어에 분포하는 문법 범주는 비슷하다. 하지만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Subject)로 바꿀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은/-는/-이/-가’를 붙이면 자연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색한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유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유를 분석하고 의미적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즉 영어의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Subject)로 바꿀 때에, 주어가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인 경우에는 ‘-은/-는/-이/-가’를 붙이는 것

이 적절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미역에는 그들 의미역에 맞는 조사나 접속사를 붙여 해석을 해야 하며 이들은 주어가 아닌 부가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어의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자역, 경험자역, 그리고 대상역외의 다른 의미역을 가질 때에, 특히 시간역, 원인역, 그리고 조건역으로 해석될 때에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사가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다소 약화된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bring’은 ‘CAUSE + COME’으로 어휘분해가 되는데 이 두 어휘 요소 중 ‘CAUSE’의 의미는 없어지고 ‘COME’의 의미만 남아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지현 (2007) 「한국어 주어의 무조사 현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28: 7-31.
- 남기심 (2010)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남기심, 고영근 (1994)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박창영 (2013) 『한국어 주어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철우 (1999) 「한국어의 화제 - 정보의 구조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19: 75-97.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 나무.
- 이선희 (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장은숙 (2005) 의미자질을 고려한 의미역 설정, 『새한영어영문학』 47(2): 213-234.
- 장영준 (2009) 영한 번역에서의 주어선택과 행위자성, 『번역학연구』 10(2): 105-132.
- Baker, Mark C. (1997). ‘Thematic Roles and Syntactic Structure’, In Liliane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pp. 73 - 137).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 Breen, Walter (1988) ‘Grammatical Relations, Thematic Roles and Control in Inversion Predicates’, *Papers from the Regional Meetings, Chicago*

- Linguistic Society* 24(1): 60-72.
- Cowper, Elizabeth. A. (1992) *A Concise Introduction to Syntactic Theory: the Government-Binding Approach*, Chicago: U of Chicago P.
- Cruse, D. Alan (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New York: Oxford U P.
- Dowty, Davi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Fillmore, Charles J. (1970) "The Grammar of 'hitting' and 'breaking'", In Roderick A. Jacobs & Peter S. Rosenbaum (eds) (1970),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pp. 120-133). Waltham, MA: Ginn and Company.
- Frawley, William (1992) *Linguistic Semantics*,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eenbaum, Sidney (2009)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ruber, Jeffrey Steven (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Jackendoff, Ray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Cambridge, MA.
- Jackendoff, Ray (1987) 'The Status of Thematic Relations in Linguistic Theory', *Linguistic Inquiry*, 18(3): 369-411.
- Katz, Jerrold J., & Fodor, Jerry A. (1963)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 170-210.
- Parsons, Terence (1995) 'Thematic Relations and Arguments', *Linguistic Inquiry*, 26(4): 635-662.
- Williams, Edwin (1994) *Thematic Structure in Syntax*, Cambridge, MA: The MIT Press.

[Abstract]

**Turning English Subjects into Korean**  
**— with an Emphasis on Thematic Relations**

Jeong, In-Sik · Chae, Sook-Hee  
(Ajou Universit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ffix ‘un/nun/i/ga’ as Korean subject markers, turning English subjects into Korean subjects. Although this seems to be unproblematic, it is not hard to encounter many inappropriate cases. The reason is that the learners consider subjects in English and Korean only in their functional perspectives. Maintaining the established appropriat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other systems in terms of thematic relations, and presents solutions. In other words, turning English subjects into Korean, it is appropriate to affix ‘un/nun/i/ga’ to the latter subjects when they are assigned a thematic role such as AGENT, EXPERIENCER or THEME. When they are assigned other thematic roles such as INSTRUMENT, CONDITION or GOAL, however, it is grammatical to affix the postposition or conjunction for the roles to them and translate them as adjuncts.

▶ Key Words: subject, thematic role, thematic relation, subjective/nominative case, subjective case marker, subjective postposition, argument, adjunct

정인식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isjeong@outlook.com

관심분야: 구문론, 담화기능.

채숙희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chaeshee@gmail.com

관심분야: 화용론, 센터링이론

논문투고일: 2015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